

30년 넘은 '제주도 문예회관' 재도약 준비

■ 제주문예진흥원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제주연구원과 협약... 적정공간 수요예측·모델 도출
 제주 대표 문화예술공간 정체성·방향성 모색 주목

개관한 지 30년 넘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공간을 변화하는 문화 예술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연구가 본격화된다.

단순 시설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시설 재단장을 넘어 제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예회관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역할 점검 및 방향성 모색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제주연구원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7000만원. 내달 초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연구에 들어가 오는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현재 공연 및 전시

공간 부족, 시설·장비 노후화, 창작 및 교육 공간 부재 등 문예회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8년 개관한 문예회관 시설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거듭하며 외형을 넓히고 가동률을 높여왔지만 장기간 사용이 이뤄지면서 건축물 등 시설·장비의 노후화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공간 부족으로 인해 매해 문화예술인들이 시설 대관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하며 도민 욕구 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문예회관 공간 효율화 및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용역진은 이번 연구에서 현 제주 문예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문화예술교육공간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도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과 전국 문예회관 운영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문예회관 적정공간 수요 예측 및 적정모델을 도출하게 된다. 또 증축, 리모델링 등 대안별 검토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운영방법(직영 및 위탁)도 검토한다.

진흥원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적 대안을 선택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내년 추경 때 실행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황학주의 시 詩 : 읽는 화요일 (12)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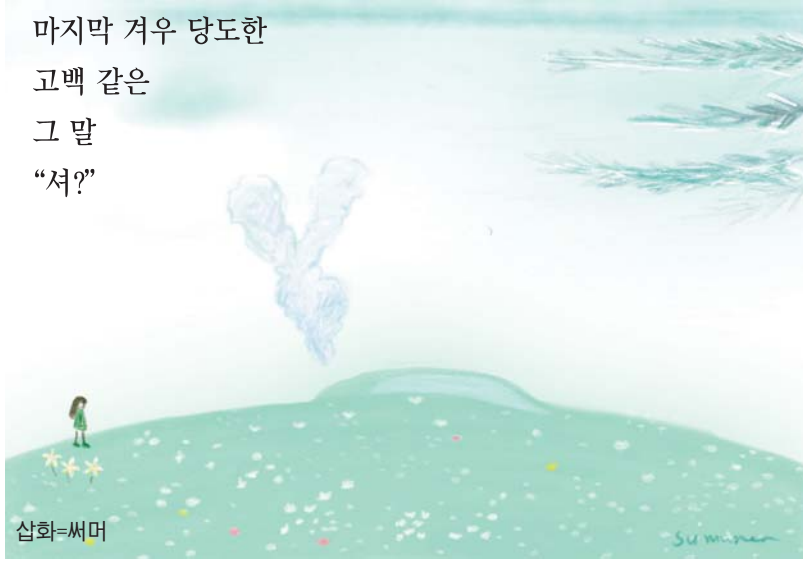
오승철

솔뚜껑 손잡이 갈네
 오름 위에 돌은 무덤
 노루귀 너도바람꽃 얼음새뿔 까치무릇

솔뚜껑 여닫는
 사이
 첫물 끓는 봄이 오네

그런 봄 그런 오후
 바람 안 나면 사람이라
 장다리꽃 담 넘어 수작하는 어느 울렔
 지나다 바람결에도 슬쩍 한 번
 묻는 말
 "서?"

그러네, 제주에선 소리보다 바람이 빨라
 "안에 계셔?" 그 말조차 다 흘리고 지워져
 마지막 겨우 당도한
 고백 같은
 그 말
 "서?"



삼화-써머

제주어 "안에 계셔?"의 단축형인 '서?'는 마치 수공예 장인의 기예처럼 안 들리는 말을 들리는 말 쪽으로 끌어당긴다. 본질적인 것은 어딘가 이질적인 것을, 이질적인 것 또한 어딘가 본질적인 것을 가지기 마련이다. 시인은 본질적이며 이질적인 제주어의 형태와 말맛에 어우러지는 어느 틈새에 감쪽같이, 제 말을 바둑돌처럼 놓는다.

동네 장다리꽃 담장에서 까치무릇 핀 오름 앞까지 한결음이라는 듯, 스치는 짧은 인연으로 무덤 한 채 있고, 솔뚜껑 여닫는 사이 달달하고 짝한 사랑이 들끓다 지면 산 자의 말은 이내 담백하고 깊어진다. 그때 본말은 생략되고 존칭 보조어간 하나의 불뚝만 짝~ 올라가는 그 말 '서?'. 모든 말이 잔잔해질 때까지 제 안에 들이며 당도한 그림달이 우리에게 묻는 말 또한 '서?' 아닐까. <시인>



강주현 작 '우리에게-수줍게 내민 손'

저마다의 시간이 머문 곳 4월 2일까지 강주현 개인전

조각가 강주현이 갤러리 거인의 정원(제주시 대원길 58)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엔 '수줍게 내민 손'이란 이름을 달았다.

"어떤 곳이 장소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곳의 시간을 머금은 일"이라는 작가는 "이번 전시는 자신이 살아온 주변의 장소성을 서로 다른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다"고 소개한다. 시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된 상태가 아닌 관객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작가는 그러한 상호적 표현을 위해 주변의 풍경들과 기억의 매개체인 여러 사물들을 소재로 활용한다.

작품 중 '우리에게'는 관객이 장소성을 기억하는 행위적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작가는 "희미하게 쓰여진 문장들은 관객들에게 쓰여진 문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이는 완성된 문장의 의미와 함께 기억하는 행위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다.

전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이어진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오은지기자

'아트페스타 인 제주' 행사준비 본격

오는 10월 13~22일까지 10일간 산지천 일대서

지난해 산지천 가을밤을 '초롱'으로 환하게 밝히며 야간축제의 확장장을 꾀한 '아트페스타 인 제주'. 올해도 야간미술축제를 즐길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제주시는 '2023 아트페스타 인 제주' 총감독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행사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지천을 중심으로 제주시 원도심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켜 온 '아트페스타 인 제주'는 올해도 산지천 일대에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총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제주대

오창윤 교수가 맡는다.

29일 강병삼 제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오 교수는 4월 중 구성되는 사무국과 함께 ▷행사 총괄 기획 ▷참여작가 및 작품 선정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장 운영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아트페스타 인 제주'는 올해 8회째를 맞는다.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다. 지난해 열린 '2022아트페스타 인 제주'엔 14개 분야의 전문가가 103명의 작품이 전시됐고, 시민참여프로그램에 800여 명이 참가해 관람했다. 오은지기자



지난해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열린 '2022 아트페스타 인 제주' 행사 기간 밤 9시까지 산지천 길을 따라 설치된 초롱 전시를 즐길 수 있었다. 한라일보DB



수훈 축하 수상

CONGRATULATIONS

제 2회 의용소방대의 날 수상자

국민훈장 (목련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소방청장표창	소방청장표창	소방청장표창	소방청장표창
									
김명자 대장 서귀포소방서 대신여성의용소방대	양제철 대장 제주소방서 노형남성의용소방대	강영철 대장 서귀포소방서 중문남성의용소방대	송호철 대장 서부소방서 고산남성의용소방대	허광호 대장 동부소방서 구좌남성의용소방대	김영선 대장 동부소방서 남원여성의용소방대	이미경 대장 제주소방서 노형여성의용소방대	현상철 대장 서귀포소방서 올레시정전문의용소방대	오용안 대장 서부소방서 안덕남성의용소방대	한명자 대장 동부소방서 신촌여성의용소방대

제 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김봉민 · 김명자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백성철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강영철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송호철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법수